

제품구매시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 분석 : 가정생활 양식유형, 안전의식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장 지 옥(경인여자대학 강사)

2004년 불량 만두소 파동, 2005년 기생충알 김치파동, 2006년 단체급식소 식중독 사고, 2007년 서해안과 남해안을 오염시키는 대재앙, 2008년 쥐머리 새우깡까지 소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는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늘 끊이지 않고 준비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쥐머리 새우깡 사건은 오랫동안 소비자들이 믿어왔던 대기업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 실망감은 더욱 컸으며 앞으로 어떤 제품을 믿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맡겨야 할지 막막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를 놀라게 한 사건들보다 소비자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는 광우병 쇠고기의 안정성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입이 시작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작물)식품이 소비자들의 식탁에 등장할 전망이어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이 시점에 대표성 있는 전국 규모의 2007년 최신 자료를 통해 소비자 안전의식이 소비자의 안전추구 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소비자 안전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과는 차별화된 의미있는 시도가 된 매우 가치있는 연구입니다.

또한 새로운 문화코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웰빙문화의 정착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로인한 실천으로서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안전의식과 더불어 식품구매시 안전추구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소비자안전의식이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 안전의식의 향상과 행동의 실천을 위해 올바른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사고 발생 후 임기응변식 대책마련과 단속,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만 일단 잠재우기식의 사고 문제 덮기에만 늘 급급했던 관련기관이나 업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 또한 늘 피해를 입으면서도 사고발생 당시에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며, 그 시기만 지나고 나면 안전 불감증에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젠 끊어야 하며 특히 식품안전부분에서 주로 여성소비자들에게만 의지해 왔던 소비자의식 수준에서 벗어나 전국민이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과 행동 개선의 향상을 위한 방향 모색의 계기마련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전국규모의 대표성 있는 최신 자료이면서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뢰할 수 있는 적절한 date를 사용하였으며,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5개 제품 채소, 육류, 곡류, 과일, 자동차 구매의 중요기준과 술, 담배, 수입농산물 즉, 3개의 회피성 제품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점은 매우 좋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그칠게 아니라 앞으로 본 연구의 주제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안전의식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구매 시 실천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소비자 관련단체와 기관에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연구의 의미 있는 결과를 토대로 점점 더 복잡하고 선택이 어려운 소비자안전문제와 대처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위한 많은 후속 연구를 기대해 봅니다.